

碩士學位論文

初等에서의 經濟教育研究

-민속놀이와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永 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商業教育專攻

金 榮 林

2004年 2月

初等에서의 經濟教育研究

-민속놀이와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永 春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商業教育專攻



提出者 金 榮 林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榮林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2月

審査委員長

黃 正 奉 (인)

審査委員

김 영 호 (인)

審査委員

최 유 인 (인)

목 차

※ 국문초록	1
I. 서론	2
1. 연구목적	2
2. 연구의 범위	3
II. 경제개념을 적용한 초등에서의 경제교육	6
1. 시장경제	6
1) 개념설명과 타당성	6
2) 목적	7
3) 지시 및 교수순서	8
4) 평가	11
2. 분업 및 전문화	16
1) 개관	16
2) 활동목록	16
III. 민속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의 모색	21
1. <땅따먹기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	21
2. <고무줄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	23
3. <윷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	24
4. <흙땀기 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	26
5. <소꿉장난 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	27
IV. 우리 전래동화의 활용 가능성	29
1. 경제교육에 문학작품의 활용에	29
2. 전래동화의 활용 가능성	30
1) 전래동화의 성격	30
2) 기초경제개념의 이해	31
3) 경제적 가치관	43
3. 활용시 유의사항	49
V. 결론	54
※참고문헌	57
※영문초록	59

초등에서의 경제교육연구
- 민속놀이와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

초 록

최근 들어 어린이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제동화의 출간이 많아졌다. 경제동화를 통한 경제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경제개념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경제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어린이 경제교육에 우리 전래동화를 이용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제개념을 적용한 초등에서의 경제교육의 예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민속놀이를 이용한 초등에서의 경제교육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전래동화, 민속놀이, 경제개념을 적용한 경제 교육을 현장에서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경제교육의 방향이 경제이론교육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주류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은 이론의 도구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의 전통적 경제가치관과 배치되는 면이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어린이 경제교육은 어린이들의 인지능력과 경험의 한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경제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특히 건전한 자본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의 전통적 경제가치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우리 전래동화와 민속놀이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경제교육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짧은 이야기는 구체적인 경제현상의 인과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제행위의 묘사를 통해서 경제행위자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특히 이론의 획일적 개념정의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경제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있다. 어린이 경제교육방향은 장차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가야할 방향이다. 건전한 자본주의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뢰, 협력, 나누기 등 우리의 전통적 경제가치관이 포함된 우리 전래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목적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경제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여 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¹⁾. 이는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의 관심을 경제학에 접목시키므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 경제학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인(economic man)이 상정되기 때문에, 발달이라는 개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게 된다. 경제인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보편적이며, 판단능력과 선호가 처음 부터 주어진 경제주체로서, 궁극적으로 시장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극도로 단순화된 이상형이다²⁾. 이는 복잡한 경제현상을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현상을 구성하는 인간행동에 대해 입증된 지식을 수용하므로써 경제현상을 보다 정교하고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화에서 얻었던 잊적 만큼 중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살피고 있는 경제사회화(economic socialization)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출발한 심리경제학(psychological economics)³⁾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⁴⁾.

사회화(Socialization)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들

1) 여기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리는 Lewis, Alan & Webley, Paul & Furnham Adrian(1995) PP. 17~52

2) 경제인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은 세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집단은 경제인가정은 반증불가능(unfalsificatiable)하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성이 없다고 단정한다. 두번째 집단은 반증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반증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들은 이 가정의 과학성을 믿고 있다. 나머지 집단에서는 반증가능하며, 이미 반증되어 명백한 오류(patently false)라고 본다. Furnham Adrian & Lewis, Alan (1986), PP.10~13. Hollis, Martin, & Nell, Edward, (1975), P. 56. J 또한, Maital은 경제인은 타고날 때부터 뛰어난 계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정보입수 및 분석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경제행위의 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나 습관의 형성 및 변화는 무시된다고 비판하였다. Maital & Maital(1993), P 13.

3) 경제심리학(economic psychology)과 심리경제학(psychological economics)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성과를 집대성하려는 시도에서 출현한 분야이다. 즉, 경제학은 연역법을 통한 이론을 구성하지만, 이론의 가정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동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있으며, 심리학은 주로 귀납법을 사용하지만, 이론적인 수준이 높지 못한 단점이 있다. 경제행위는 사회행위 중에서 가장 비중있게 취급하여야할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심리학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분야의 관심을 통합하면서 설명의 범위를 넓히고, 설명의 정확성을 높히자는 의도에서 발생한 중범위 학문인 경제심리학이다. 명칭은 어느 분야의 설명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도 구별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4) Lea Stephen, E.G., Tarpy, Roger, M. & Webley, Paul,(1987), P.372

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익히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사회적 역할 (social role)을 습득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⁵⁾ 따라서 경제사회화(economic socialization)란 경제환경 속에서 한 개인이 경제지식과 기능(skill)을 얻어가고, 경제환경에 익숙해지며, 이에 적합한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에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성장하여 결국에는 그 속의 일원이 된다. Lewis & Webley & Furnham (1995)는 이러한 과정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우선, 성인들의 경제행위는 어린시절과 청소년기에 형성된다. 따라서, 어린시절에 어린이들이 겪는 사회화는 장래의 경제행위, 더 나아가서는 장래 경제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른들의 선호나 경제적 의사결정의 특성은 일부 경제사회화과정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⁶⁾. 둘째로, 어린이들의 경제사회화과정을 이해하므로써 경제교육을 시작하는데 적절한 시점과 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과정에서부터 정규교육과정내 경제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⁷⁾. 이 교육의 방향은 그만두더라도, 그 내용을 다룰 시기가 적절할가라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경제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경제심리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자명함에서 불구하고, 국내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발달심리학에서도 취급하는 부분은 주로 도덕성 발달이나, 자아개념 또는 감각의 발달 등에 국한되어 있다⁸⁾. 그렇다고, 외국의 연구결과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간의 사회화는 생물학적인 속성을 기초로 하지만, 문화적 속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⁹⁾ 게다가, 외국의 연구

5) Lewis, Alan & Webley, Paul & Furnham Adrian(1995), P.17

6) Joachim Scholz (1986)은 성장과정에서 가정교육방식이 장래 가치관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에 대하여 흥미로운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대학생 이전에 형성된 가치관이 사회화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변화될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교육부 (1994)에서 1996년 부터 실시하려고 마련한 제6차교육과정에서 사회과에 속하는 경제교육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나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의 개념과 경제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P.122). 고등학교가 되면 사회에서 경제영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전문적지식의 습득과 과학적 탐구능력을 길러준다는 목표(P.46) 하에 미시경제학분야에서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원리, 거시경제학에서는 국민소득을 비롯한 물가, 실업 등과 경제정책에 대하여 다룬다. 또한 국제경제학분야에서는 국제무역의 이론적 설명과 국제수지 및 환율을 다루게 되므로, 자본주의 경제학에 대한 기본지식은 거의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8) 송명자(1995), P. 22

9) 차재호, 나은영 (1995)

는 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다른 측면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논문은 외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경제사회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제사회화가 경제인화인가라는 가설을 전체적인 논의의 기준으로 삼았다. 경제인화라는 기준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흥미를 일으킬만한 주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사회화의 실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일 뿐이다.

2. 연구의 범위

외환위기 이후에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어린이 경제캠프가 열리고 어린이 경제교육 사이트 등도 개설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경제교육서적의 출간은 주목할만 한다. 1990년대 들어서 간간히 출간되어 오던 어린이 경제교육서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외환위기 이후 어른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일시적 풍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미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성숙시켰다. 용돈관리교육 등 어린이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부모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시장경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기초개념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시켜 왔다.

학부제의 시행과 함께 최근 대학에서 경제학교육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경제교육방법이 시대의 물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물리학에서 많은 이론이 차용되었고, 표현방법이 물리학에 가까운 사회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수리적 표현에 익숙해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경제학은 여전히 공급자중심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제이론의 현실적 유용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교과서 중심의 강의도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어린이 경제교육이 사교육시장에서 새롭게 부상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사교육시장에서는 수요자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흥미로운 교재들이

많이 개발되리라고 기대된다. 요사이 속속 출간되는 경제동화나 경제활동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컴퓨터게임 또는 경제놀이 등은 경제교육자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교재나 자료들이 경제학에 깊은 지식이 없거나 어린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전래동화의 내용을 분석하여 어린이 경제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전래동화는 구전을 통하여 전해오던 옛날 이야기로서 우리나라 사람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친숙하다.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옛이야기는 우리 조상이 어린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우리 사회의 고유한 가치관을 계승시키는데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어린이 경제교육자료로 우리 전래동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서 정오 씨의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두 권에 있는 약 160개의 옛이야기와 심청전, 흥부전, 양반전, 허생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옛이야기는 글을 모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내용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 정오 씨의 책은 다른 책에 비하여 내용과 어투가 잘 다듬어져 있다.

어린이 경제교육의 내용은 크게 경제기초개념, 경제현상의 이해, 경제적 가치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기초개념과 경제현상의 이해를 합하여 하나로 다루고 경제적 가치관은 따로 다루었다. 어린이 경제교육은 대학의 경제교육과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먼저 어린이들이 가지는 인지능력의 한계를 염두하여 경험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재 대학에서 강의되는 주류경제학은 방법론적 도구주의(methodological instrumentalism)에 입각한 연역적 체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구주의 방법론은 가정에 입각한 체계로서 가정의 현실적합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이론의 가정을 마치 입증된 사실처럼 교육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절에서는 어린이 경제교육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또 최근에 출간되는 어린이 경제교육서를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할 것이다. III.에서는 경제기초개념과 경제현상을 이해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전래동화의 내용을 분류할 것이다. 우리 전래동화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관이 현대 경제이론의 전제와 어떻게 다른 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린이 경제교육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도 지적할 것이다.

II. 경제개념을 적용한 초등에서의 경제교육

1. 물물교환, 화폐교환, 화폐

1). 개념 설명과 타당성

개념 정의

1. 물물교환: 재화 및 서비스끼리의 직접 교환
2. 재화와 서비스의 분할가능성: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때 이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지의 여부
3. 교환비율: 물물교환을 할 때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 몇 개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의미함
4. 화폐: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5. 화폐교환: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
6. 가격: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의 양
7. 상호교환: 두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원하는 상태의 교환
8. 전문화: 근로자가 매우 한정된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만을 생산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는 현상

타당성

이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물물교환, 화폐교환, 화폐의 경제학 개념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 물물교환 체제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물교환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할 것이다. 물물교환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는 예를 들어 서로 교환하기 원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거래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분할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가 많다는 문제, 서로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준 체계의 부재, 전문화나 생산을 저해하는 효과 등이 있다.

화폐교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학생들은 이런 물물교환의 문제점 가운데 어

떤 것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물물교환에 비해 화폐교환이 낫다는 느낌은 각자에게 할당된 현장 경험을 통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학생들은 잘 짜여진 후속 활동에서 화폐의 일반적인 개념을 파악할 것이다.

이 학습을 통해 일부 비경제학적인 학습과 사회적인 상호작용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1) 다양한 형태의 물물교환, (2) 물물교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느낌, (3)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물건의 가치 및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좌절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목적

1. 학습자는 물물교환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 가운데 최소한 세 가지 정도를 토론하거나 나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생산 전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 상호교환을 달성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
- 교환하려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쓸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 체계가 없음
- 교환을 위해 탐색활동을 하는 데에 낭비된 시간
- 받아들일 수 있는 교환비율을 찾기까지 낭비된 시간
- 교환하려는 재화의 부패 가능성(예를 들어 녹거나 부패하는 음식)
-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 교환을 연결시켜 줄 "연결고리"(제3의 재화)에 대한 필요성

2. 학습자들은 화폐교환 체제가 생산활동이나 재화의 교환을 어떻게 원활히 하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효과 가운데 적어도 세 가지를 각자의 용어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나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거래가능한 교환을 발견하기 위해 소요된 평균 시간을 줄인다.
- 서로 다르거나 분할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해준다.
- 교환비율을 쉽게 결정하게 해주고 서로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쉽

게 비교하게 해준다.

● 전문화를 통해 생산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된다.

3. 10개의 상황으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면서 학습자는 최소한 6개 이상에 대해 물물교환 경제보다는 시장경제(화폐경제)를 더 잘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구분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4. 학습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화폐라고 정의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 지시 및 교수 순서

교실 배치 및 교재

교사는 각 학생에게 교환하려는 물건을 같은 것으로 5개씩 가져오도록 한다. 5개 물건의 가치를 모두 합했을 때의 최대가치는 교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 1,000원으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최대가치는 물론 학급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가 5개씩의 물건을 각 학생에게 직접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물건의 예로는 5개의 사탕, 5개의 검, 5개의 구슬, 5개의 과자, 5장의 야구카드, 5자루의 연필, 5개의 지우개 등이 있다.

교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물건을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둔다.

활동의 순서 및 절차

교사: "각자 교환해야 할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교사가 칠판에 목록을 정리한다.) "물건을 바꾸거나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것을 물물교환이라고 한다." (교사가 물물교환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적는다.) "오늘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물건을 자기가 갖고 싶은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 예를 들어 진수가 과자를 갖고 있는데 지우개를 원한다고

하자. 진수는 현주에게 가서 지우개와 과자를 바꿀 수 있어. 너희들은 몇 개의 과자와 몇 개의 지우개를 바꾸어야 하는지를 직접 결정해야 해. 또 너희들은 각자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교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해. 현주가 진수의 과자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진수야,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래?" (교사는 학급으로부터 교환의 반복이나 교환의 연결고리에 대한 생각이 도출되도록 노력한다.)

"시작하기 전에 각자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다른 친구가 가지고 온 것 가운데 너희가 갖고 싶은 것 세 가지를 정해 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거야.(칠판에 적혀있는 모든 물건의 리스트를 주지시킨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목록을 작성한다.) "물물교환을 마친 후에 우리 모두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었는지를 보기 위해 목록과 대조할거야."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환을 시작하라고 하고 사전에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5-15분이 흐른 후 교환을 중지시켜야 한다. 교사는 물물교환을 중지시킬 소리신호를 학생들과 약속해 놓아야 한다. 교환시간이 지난 후 모든 교환행위는 멈추고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토론 모임을 시작한다.

물물교환 동안에 있었던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해줄 수도 있다. 그러한 기준의 예로 교환은 자의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강제로 하지 말고)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토론 모임: 학생들로 하여금 물물교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무엇을 얻었고 누구와 교환했고 몇 개나 교환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교사: "물물교환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니? 교환에 의해 너희가 얻고 싶었던 것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니?" (학생들은 자신의 목록을 확인한다.)

있을 수 있는 경제적인 대답: 교환하기 어려웠어요; 애가 원하는 것은 재것인데 재는 다른 애것을 원했어요; 애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물건을 교환해야 했어요(예를 들어 A는 B의 물건을 원하고 B는 C의 물건을 원하고 해서 A는 B에게 주기 위해 할 수 없이 C와 교환했어요); 서로 물건이 다르고 쪼개지지 않아 교환비율을 결정하기 어려웠어요(예를 들어 지우개 한 개와 과자 몇 개를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환할 상대방을 찾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비경제적인 대답: 교환 형태가 다양했어요(예를 들어 적극적 태도 vs. 소극적 태도); 교환할 상대방을 찾지 못해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워요(예를 들어 순서를 안지킨다거나 고향지르는 행위 등).

교사: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과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교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이 있는 사람?" 교사는 화폐교환 체제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토론을 부추긴다. 필요하다면 교사는 우리 경제가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학생에게 물어본다. 사람들은(너희들은) 가게에서 원하는 물건을 보통 어떻게 구하니? 사람들은(또는 좀더 현실적으로 부모님은) 원하는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제공하셨니? 예: 시간, 지식, 노동, 재화(의사, 변호사, 기능공, 구두가게 주인 등과 같은 특정한 직업을 거론할 수도 있다.)

교사: "오늘 너희들이 경험한 물물교환의 문제점을 다소 줄이는데 화폐교환 체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있을 수 있는 대답(약간의 도움 하에): 물건을 서로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적게 들어요; 재화와 서비스가 화폐 가격에 의해 "분할"되니까 교환비율을 결정하기 쉬워요; 서로 다른 물건의 상대가치를 가격을 가지고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보다 화폐를 갖고 다니는 것이 편해요.

교사는 화폐교환 체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몇 가지의 물건이나 심지어는 한 가지의 물건(스키와 같은)만 생산하는 전문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 물물교환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물건과 직접 교환할 수 있을 것같은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후속 활동

화폐. 교사는 학생들이 화폐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간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나라 돈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즉 돈을 가지고 저축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만약 모든 사람이 배추색 돈(10,000원짜리 화폐) 대신에 빨간색 돈을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화폐교환 체제는 여전히 작용할 것인가? 만약 모든 사람이 조개껍질을 사용한다면? 간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폐로 쓰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것이든지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가?

따라서 이들 제기된 토론거리는 다음과 같은 화폐의 정의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의. 화폐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내는 지불수단으로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나 그런 것들의 조합이다.

현장 경험. 교사는 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화폐와 1,000원에 해당되는 물건(1,000원짜리 화폐를 제외하고)을 가지고 가게에 가도록 한다. 학생들은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가게주인에게 물어본다. "저에게 1,000원짜리 돈과 1,000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는데 어떤 것을 받길 원하세요?" 가게주인이 결정한 후에 학생은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여쭙어 보아야 한다.

교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 각 가게주인은 어떤 결정을 했지?
- 가게주인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 교사는 대부분의 가게주인이 1,000원짜리 화폐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물건보다는 화폐를 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 혹은 신념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4). 평가

이제 물물교환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다음의 각각에

대해서 물물교환의 문제점을 설명하라.

1. 승헌이는 흔들의자를 가지고 있는데 젓소와 교환하기를 원한다. 미영이는 젓소를 갖고 있으나 승헌이의 흔들의자와는 바꾸고 싶지 않다. 문세는 승헌이의 흔들의자를 원하지만 젓소를 갖고 싶지는 않다.

답: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렵다.

2. 철수는 말 1마리를 갖고 있고 희철이는 양 1마리를 갖고 있다. 그들은 서로 교환하고 싶지만 철수가 자신의 말 1마리는 양 2마리의 가치와 같다고 주장한다. 희철이는 또 다른 양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렇다고 말 반 마리를 가질 수도 없다.

답: 교환에 필요한 공통 기준 가격이 없다. (물건을 분할할 수 없다.)

3. 휴식시간 직후 미숙이는 자신의 색연필 1 다스를 갖고 요요를 갖고 있는 친구를 찾으러 학교를 돌아다녔다. 미숙이는 요요를 갖고 있는 친구를 몇 명 찾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색연필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휴식시간이 끝날 때쯤에서야 미숙이는 교환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결과 미숙이는 놀 시간이 사라졌다.

답: 교환을 위한 탐색에 시간을 낭비한다.

4. 보라는 줄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막대기 사탕 반 개를 주고 싶다. 줄넘기를 잘하는 몇 명이 보라에게 줄넘기를 가르쳐줄 용의는 있으나 막대기 사탕 1개를 요구했다. 보라는 줄넘기 가르치는 것이 막대기 사탕 반 개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막대기 사탕 반 개에 줄넘기를 가르쳐 주겠다는 금회를 발견했다.

답: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환비율을 찾기까지 시간을 낭비한다.

5. 진희는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 콘을 교환하고 싶다. 진희는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수진이의 땅콩 사탕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수진이

는 "안돼, 네 아이스크림은 벌써 다 녹아 버렸잖아!"라고 말한다.

답: 어떤 재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용성이나 질이 떨어진다.

6. 승희는 사인이 있는 야구팀 사진을 원한다. 주훈이가 한 장 갖고 있지만 승희가 갖고 있는 물건과는 바꾸고 싶지 않다. 주훈이는 야구 방망이를 원한다. 그래서 승희는 자신의 머리핀과 수진이의 필통을 바꾸었고 그 필통을 이번에는 덕훈이의 모형 자동차와 바꾸었고 모형 자동차를 동탁이의 야구 방망이와 바꾸었다. 이제 승희는 주훈이와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답: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연속적인 교환이 필요하다.

7. 농부인 창명이는 자신의 밀 두 자루와(각 자루는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음) 농부인 세진이의 옥수수 한 자루를(2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음) 바꿀 수 있다. 만약 창명이가 가게에 가서 밀을 팔면 20,000원을 받을 수 있다. 창명이는 여러분의 경제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창명이는 다음의 두 가지 - (1) 가게에 가서 팔고 20,000원을 받는다, 또는 (2) 세진이에게 가서 옥수수 한 자루를 얻는다 - 가운데 어느 것을 원할까? 왜?

답: (1). 창명이는 20,000원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금방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창명이가 원하는 것은 옥수수가 아닌 다른 것이거나 아니면 세진이에게 가는 것보다 가게에 가는 것이 시간이 적게 든다는 조건 하에서)

8. 감자골이라는 동네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가격이 있다. 동네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서는 돼지 2마리 = 젓소 1마리, 옥수수 6개 = 옷감 1미터 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교환하고 싶으면 주인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달걀 몇 개에 해당됩니까?"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진다! 이 동네에서 화폐교환 체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답: 화폐는 물건의 가치를 공통적으로 측정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서로 교환해야 할 물건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

9. 당신은 정말로 예쁜 10개의 대나무 가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을 무엇과 바꾸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당신은 (1) 화폐경제에서 당신이 만든 가방을 팔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러 가겠는가, 아니면 (2) 물물교환 경제에서 교환하고 싶은 물건을 찾으러 다니겠는가?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답: 만약 재화와 서비스가 화폐의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다음 문장을 읽고 그것이 화폐교환 경제를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물교환 경제를 설명하는 것인지 고르시오. 만약 물물교환 경제이면 "물"을, 화폐경제이면 "화"를 _____ 위에 써넣으시오.

10. ___물___ 닭 한 마리는 사과 5개나 못 한 상자나 과자 10봉지의 가치를 갖고 있다.

11. ___화___ 가게 주인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한다.

12. ___화___ 사람들은 지갑을 이용한다.

13. ___물___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에 있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4. ___화___ 개의 털을 깎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15. ___화___ 가게 주인은 사람들이 우유를 사러오기 전에 우유팩에 가격을 의미하는 숫자를 찍어 놓는다.

16. ___물___ 만약 당신이 마른 풀 한 다발을 팔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들고 다녀야 한다.

17. ___물___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

18. ___화___ 물건을 사고 팔기가 쉽다.

19. ___화___ 당신은 스위스의 아름답고 작은 어떤 마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시계를 생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거래동이라는 곳의 물물교환 경제에서 오늘 다음과 같이 가격이 결정되었다.

종환이는 장난감 자동차 1개를 얻기 위해 요요 2개를 지불했다.

미라는 요요 3개를 얻기 위해 과자 1봉지를 지불했다.

영철이는 요요 1개를 얻기 위해 빵 1개를 지불했다.

거래동 사람들은 화폐경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폐단위를 '냥'으로 부를 것이며 1냥은 요요 1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때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 얼마의 가격을 붙여야 하는지 당신이 도와줄 수 있나요?

20. ___1___ 빵 1개는 몇 냥인가?

21. ___2___ 장난감 자동차는 1개는 몇 냥인가?

22. ___3___ 과자 1봉지는 몇 냥인가?

23. 머나 먼 아프리카 오지에는 부쉬라는 부족이 살고 있다. 이들에게 암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다. 만약 당신이 목걸이를 사고 싶다면 일정량의 암소를 지불해야 한다. 부쉬 남자들은 심지어 부인을 사기 위해서도 암소를 지불하곤 한다. 부쉬족에게는 암소가 화폐인가? (그렇다 또는 아니다) 그 이유는?

답: 그렇다.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24. 어떤 곳에서는 조개껍데기가 화폐로 쓰이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누구든지 바닷가에 가서 조개껍데기를 주을 수 있을텐데! 왜 조개껍데기가 화폐로 쓰일 수 있을까?

답: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화폐가 될 수 있다.

25.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돈은 종이로 만들어진다(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왜 종이돈은 화폐이지만 공책의 종이는 화폐가 아닌가?

답: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이돈을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기꺼이 받지만 공책의 종이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2. 분업 및 전문화

주제: 생산 작업은 분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1) 개관

이 주제와 관련된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념을 소개시켜 준다. (1) 대부분의 재화는 많은 특정한 작업으로 나누어져 생산될 수 있다; (2) 이들 각각의 작업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특정한 사람에게 할당될 수 있다.

한 가족의 식구들이 집에서 하는 다양한 일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가게를 꾸려나가는 일도 분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들의 목록은 또한 한 가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문화의 정도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잔디를 깎으시고, 페인트칠하시고, 정원을 가꾸신다. 어머니

는 청소하시고, 장보시고, 음식을 마련하신다. 아이들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2) 활동 목록

- (1) 노동의 분업
- (2) 노동의 분업으로 신발 만들기
- (3) 노동의 분업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주제 1: 노동의 분업

권장 학년: 1

일반화: 가게는 쓸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을 좀더 효율적이며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주제: 생산 작업은 분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활동의 타당성: 이번 활동의 목적은 대부분의 재화가 많은 특정한 작업으로 나뉘어 생산될 수 있으며(노동의 분업) 이들 각각의 작업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특정한 사람에게 할당된다(전문화)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목적:

학생들은 작업 책상 B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전문화된 작업에 대한 이름을 붙임으로써 노동의 분업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재료:

적당한 크기의 두 개의 작업 책상

중간 크기의 크레용 10박스(모두 완전히 채워져있는 것)

절차:

모의실험에 참가할 자원 학생 20명(또는 이보다 적어도 됨)을 뽑고 두 작업 책상에 반씩 나누어 배치시킨다. 이 때 학생의 수와 박스당 크레용의 갯수가 일치해야 한다.(예를 들어 8명의 학생이 있다면, 박스에 8가지 색의 크레용이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24가지 색의 크레용이 있다면 각 학생에게 세 가지 색을 할당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각 학생은 중간 크기의 크레용 박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책상위에 크레용을 쏟도록 한다. 책상 A와 B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모두 이해했으면 각 집단은 동시에 작업을 시작한다. 책상 A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크레용을 하나씩 골라 박스에 정리하도록 한다. 책상 B에는 조립라인을 설정해주고 각 학생에게 한 가지(또는 여러 가지)의 색깔을 할당하여 박스에 정리하도록 한다. 모든 박스는 조립라인에 있는 첫째 학생으로부터 정리되기 시작된다. 자기가 맡은 색깔의 크레용을 박스에 담은 후 그 박스는 다음 사람에게 넘겨진다. 각 박스는 모두 채워질 때까지 다음 사람에게 차례차례 넘겨진다.

다음 질문을 한다.

책상 A에는 몇 명의 근로자가 있었지?

책상 B에는 몇 명의 근로자가 있었지?

각 책상에서 근로자들이 맡은 일 또는 목적은 무엇이었지? 어느 집단이 일을 먼저 끝냈지? 왜 그렇지?

책상 A에 있는 근로자는 무엇을 했지?

책상 B에 있는 근로자는 일을 어떻게 나누었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일을 나눌 수 있었을까?(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전문가에 대해 이름을 짓도록 한다.)

너희 집에서도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니? 어떻게?

그러면 너희 집에서 네가 하는 전문적인 일(또는 다른 가족이 하는 전문적인 일)은 뭐지?

교실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적인 일에는 무엇이 있지?

이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누구지?

선택사항:

학생들이 분업에 의해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하나 골라 그리고 색칠하게 하라.

주제 2: 노동의 분업으로 신발 만들기

권장 학년: 2

일반화: 가계는 쓸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을 좀더 효율적이며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주제: 생산 작업은 분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활동의 타당성: 이번 활동의 목적은 대부분의 재화가 많은 특정한 작업으로 나뉘어 생산될 수 있으며(노동의 분업) 이들 각각의 작업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특정한 사람에게 할당된다(전문화)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목적:

학생들은 신발 제작과정에서 할당된 다양한 작업들을 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료:

보통 종이, 가위, 크레용, 풀

절차:

학생들에게 자신의 한쪽 신발을 벗어보라고 한다. 그 가운데 하나의 신발을 고른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신발 만드는 사람이며 이 신발과 똑같은 것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해보라고 한다. 칠판에 색칠한 신발의 그림을 그린다. 신발의 각 부분이 그려진 색칠된 여러 종이를 자르고 그것을 서로 풀로 붙여 신발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신발 뒷축-검은색, 밑창-갈색, 신발외양-흰색)

학급을 두 집단 이상으로 나눈다. 각 학생집단에게 충분한 종이를 준다.(각 집단당 5-10장 정도) 학생들로 하여금 신발의 여러 부분의 목록을 적게하고 토론하게 만든다.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신발의 어느 부분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예를 들어 뒷축 자르는 사람, 밑창 자르는 사람, 풀로 붙이는 사람 등) 어느 집단이 주어진 시간--아마도 20분 정도--에 가장 많은 신발을 만들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한다.

후속 질문

신발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각 집단에서 각 근로자에게 할당된 다양한 작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

각 집단은 신발 몇 켤레를 만들었지?

너희들은 신발 말고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노동의 분업이 쓰이고 있는 예를 알고 있지?(학교에서나 집에서)

선택사항:



원한다면 학급을 같은 규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라. 한 쪽은 위의 활동을 하게 하라. 다른 쪽은 각 학생이 신발 전체를 만들게 하라.

주제 3: 노동의 분업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권장 학년: 3

일반화: 가게는 쓸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을 좀더 효율적이며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주제: 생산 작업은 분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활동의 타당성: 이번 활동의 목적은 대부분의 재화가 많은 특정한 작업으로 나뉘어 생산될 수 있으며(노동의 분업) 이들 각각의 작업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특정한 사람에게 할당된다(전문화)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목적: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조립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확인하고 관찰하고 참여함으로써 노동의 분업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것이다. (만약 교사가 원한다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꽃만들기, 눈사람 만들기, 장식물 만들기 등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재료:

색있는 종이, 가위, 크레용, 풀

절차:

학생들에게 종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싶은지 물어보고 트리의 모양을 그려보라고 한다. 어떤 모양의 트리를 만들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학생집단(5-10명으로 구성)들끼리 어떤 모양의 트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잘 생각하고 상의하도록 한다.

학급이 쓸 모형이 결정되면 칠판에 커다란 트리를 그리고, 트리가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게 할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결정하게 한다. 각 집단에 대해서, 각 작업을 집단 구성원 가운데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그들의 목적은 학급 전체를 위해 동일한 모양의 트리를 충분하게 만드는 일이다. 각 집단은 하나나 여러 개의 조립라인을 설정해야 하고 그 위에서 각 학생은 트리를 만들기 위해 특정한 작업을 해야 한다. (각 트리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결정하고 트리에 이름을 쓸 학생을 지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조립라인의 맨 끝에 위치해야 한다.)

각 집단을 대표하는 한 학생이 그들이 했던 트리 만드는 일의 여러 작업을 설명해야 한다. 각 근로자가 무슨 작업을 수행했는가?

각 집단의 보고가 끝난 후에 자신의 집에서 어떤 생산활동이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급에서 토론하도록 한다. 교실에서는 어떤 활동이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선택사항:

학생들로 하여금 트리 만들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라.

III. 민속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의 모색

1. '땅따먹기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

<희소성과 관련한 경제교육>

희소성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원을 절약하거나 더 좋은 생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경제 행위는 자신의 욕망에 비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경제 문제는 이 희소성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가에서 시작된다.

'땅따먹기놀이'는 '땅재먹기놀이' '땅빼앗아먹기놀이' 등의 붙여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땅'이라는 제한된 자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많이 획득할 것인가의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잘 함축되어 있다. 이처럼 끝없는 인간의 욕망과 제한된 자원의 갈등 문제는 다름 아닌 경제학에서의 가장 핵심 과제인 '희소성'의 문제이다.

'땅따먹기놀이'는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된 조그만 공간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자신의 '목카'를 튕겨 세 번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땅(공간)을 모두 차지하게되는 놀이이다. 이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땅이 넓으면 멀리까지 '목카'를 튕겨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돌아오기가 대단히 어렵고 매번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이때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크면 얼마나 좋을 까? 빨리 더 많은 땅을 따먹어야지.' 하고 더 많은 땅의 소유에 대한 아쉬움

과 그것을 가지기 위한 강렬한 욕망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한 끝없는 욕망과 제한된 땅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

끝없는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화나 용역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희소성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예산이나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리적 선택을 요구한다. 얻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희소성이 클수록 인간은 더욱 큰 모험을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상의 놀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땅따먹기놀이'를 통하여 희소성의 경제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들은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복추구의 길임도 깨닫게 된다.

<사유재산과 관련한 경제교육>

'땅따먹기놀이' '땅재먹기놀이' '땅빼앗아먹기놀이'의 '땅을 따먹고' '땅을 재어먹고' '땅을 빼앗아먹는다' 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야닌 개인의 강렬한 사적소유의식이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카'를 기술적으로 튕겨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세 번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경우 자신 소유의 땅이 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땅을 따먹으려고 노력하고 기술개발을 하게될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 이러한 개인의 강렬한 사적소유의식은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재산제도는 인류의 역사적 발전의 소산이다. 소유권은 완전히 절대적이고 소유권의 목적물은 향락재든 자본재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유재산은 분업과 함께 경제활동과 사회조직의 근본을 이룬다.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조직의 기초로서 법률에 의해 재산의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제도다. 재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인정되고, 개인은 자신에게 속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제도는 18~19세기에 자본주의의 대두와 함께 발생했다. 이러한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주의적이어서 재산권의 주체가 민족과 종족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특질을 지닌다.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은 개인들에게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그 소유에 대한 유인이 크면 클수록 개인들의 소유욕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개인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더욱 경쟁적이게 만든다. '땅따먹기놀이'엔 강한 소유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놀이를 통하여 많은 땅

을 소유하는 것도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되는 것도 정말 신나는 일임을 깨닫는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것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작고 값이 싼 생활필수품부터 옷, 피아노, 자동차, 집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마다 필요로 하는 것과 갖고 싶은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획득하는 것, 소유하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은 산업 정보사회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신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은 자신이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땅을 따먹는다' '땅을 재어 먹는다' '땅을 빼앗아 먹는다'는 의미 속에는 강렬한 소유의식이 담겨있다. '땅따먹기놀이'는 자기의 뽀의 크기로 만든 집에서 점점 더 많은 땅을 부풀려 간다. 이 과정에서 좀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갖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저절로 소유의식이 싹트게 된다.

소유를 향한 강한 집착은 사회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기도 한다. 밤낮없이 일하여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노동자, 한 가지 물건이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판매전략을 내세워 열심히 뛰어다니는 상인,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개발에 모든 정열을 쏟는 기술자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 수백 미터 갭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석탄을 캐는 광부들, 세계를 누비며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불태우는 기업가들. 이처럼 경제주체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은 자기의 물건을 가지기 위한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발전의 길로 치닫고 있는 반면에 공동소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사유재산의 매력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유는 능력의 원리에 따른 사유재산제도를 잘 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고무줄놀이>를 통한 경제교육

<경쟁의식과 관련한 경제교육>

'고무줄놀이'는 한 줄로 하는 놀이의 경우 개인이 더 높은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쟁을 한다. 또 두 줄로 하는 놀이는 집단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 전자가 단순한 동작을 점점 높아지는 높이의 단계에 난이도를 부여한다면, 후자는 일정한 높이에서 단순한 동작을 점점 복잡한 것으로 진행하는 단계에 난이도를 부여한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개별적 경쟁의식 및 집단적 경쟁의식을 배워나간다. 이러한 경쟁의식은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날마다 경쟁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경매나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계약을 형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경쟁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경쟁 욕구는 경제 발전의 동기가 된다.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이기고 싶다면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더 참신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경쟁우위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자기의 전략을 확립하고, 이에 의해 기업의 활동 영역과 목표를 정하여 경쟁 기업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함을 뜻한다. 경쟁의 승자에게는 영광이, 패자에게는 좌절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무줄놀이'에서는 자기편에서 실수를 하여 '죽은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수만큼 자기편 아이들이 살려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각각의 줄을 번갈아 가며 발에 걸고 다뤄야 하는 등 두 줄 놀이는 한 줄 놀이보다 훨씬 어렵고 해내기 힘들다. 한 편이 어떤 단계에서 모두 죽어 술래를 한 후 다시 할 때도 그 전까지 거처온 놀이 단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틀린 단계부터 이어서 하도록 허용된다.

이와 같이 이 놀이는 엄격하게 경쟁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렇게 길러진 경쟁의식은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경쟁의 합리성은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시장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마다 더 나은 생산방법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적절한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뼈를 깎는 괴로움이 수반되겠지만 이를 극복했을 경우 자기 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도 기약할 수 있다. 경쟁의 세계에서는 경쟁을 위해 자신의 정열을 얼마나 쏟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 최선을 다하는 경쟁은 이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나라와 시대 및 주어진 경제 상황에 따라 경쟁력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혁신(innovation), 기술개발,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가격과괴전략 등은 기존의

치열한 경쟁의 소산물들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적으로 경쟁의식을 불태웠다. 그러한 강렬한 경쟁의식은 '따라잡기 모델(catch-up model)'⁸로 승화되었고, 압축경제성장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3. <웃놀이>를 통한 경제교육

<기회비용과 관련한 경제교육>

'웃놀이'는 도·개·걸·웃·모 중의 하나가 나온 것에 따라 자기편의 말을 한 개씩 또는 짝을 지어 자기편에게 가장 유리한 웃판의 길을 선택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에서 이와 같은 것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 가치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인간의 삶은 무수한 선택(choice)의 과정이다. 선택이란 A와 B 둘 다가 아니라, A와 B 둘 중의 하나이다. A와 B 모두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A 아니면 B 하나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이므로 경제학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우리는 매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소한 소비제품을 선택하는 일부터 학교, 전공, 배우자, 직장, 주택의 형태 등은 물론, 국가의 예산 중 국방비를 늘릴지 교육비를 늘릴지, 환경을 보존할지 에너지 개발을 할지 등 끊임없는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선택을 해야 한다. 더욱이 물가와 실업 문제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정책을 해야 하므로 그 결과 생산위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실업을 줄이려면 확장정책을 해야 하므로 그 결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이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다. 하지만 시간과 자원,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한가를 신중히 판단해서 선택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는 것 없이 비용이나 희생만 치르려고는 하지 않는다. 기꺼이 일정 비용(cost)을 치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 편익(benefit)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마

런이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란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윗말을 쓰는 과정에서 체득하는 기회비용적 사고는 생활경제교육의 정착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합리적 투자와 관련한 경제교육>

'윗놀이'는 윗짜를 던지고 말을 사용하여 승부를 다투는 놀이이다. 각자 도·개·걸·윗·모의 나온 결과에 따라 자기편의 말을 한 동씩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말과 함께 동무를 하여 가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한 동씩 가게 할 경우는 안정성은 있지만 속도가 느려 상대방에게 경기에서 질 수 있다. 반면에 한꺼번에 2~4개 동씩 짝을 지어 자기편의 말을 가게 할 경우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잘못하면 한꺼번에 상대방의 말에게 잡혀서 모두 죽게될 수가 있다. 어떻게 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실제 경제에는 어떤 것이 이와 같은 원리로 운영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식투자에서 그 예를 살필 수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달걀을 조심조심 다루지 않으면 깨어지는 물건이다. 한 개의 달걀도 잘못 다루면 깨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 개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 잘못 취급하면 바구니에 담긴 달걀을 한꺼번에 모두 깨뜨려버릴 수 있으므로 달걀을 적절하게 나누어 담아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주식투자에는 분산투자와 집중투자가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은 적절히 주식을 나누어 사서 주식투자를 잘못된 것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분산투자란 투자자가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집중투자란 안전성을 무시하더라도 최고의 수익을 노리고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중에 돈이 100만원이 있을 때 그 돈을 여러 군데 나누어 투자를 하는 것이 분산투자이고 한군데 이득을 볼만한 한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집중투자이다. 분산투자가 투자자에 유리한가 집중투자가 유리한가 하는 문제는 투자 자금의 규모, 투자기간, 투자목적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초보자에게는 안정성이 높은 분산투자가 적합하다. 왜냐하면 집중투자를 했을 경우 적중했을 경우는 물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예측을 잘못하여 실패했을

경우는 전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흥망과 관련하여 그 기업과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주식의 가격은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때로는 단기간에 매우 큰 변동폭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투자를 통하여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주가 움직임을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수고는 보유주식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게 되며, 한 개인으로서 모든 종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우리는 그 기업경영을 잘못하여 망하게 될 때 나도 그 기업처럼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산투자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옫놀이'를 통하여 집중투자와 분산투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속놀이를 통한 경제교육은 지식과 삶의 화해, 이론과 실천의 조화의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민속놀이는 우리의 고유한 멋과 흥과 가락이 어우러져 있음으로써 이를 활용한 경제교육의 모색은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이며 가장 경쟁력을 갖춘 경제교육방안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컴퓨터오락게임이나 지능개발 놀이 등이 아이들의 놀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의 정서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치유방안으로서 민속놀이를 통한 경제교육은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가 아동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비추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문화 역시 변하게 마련이므로, 민속놀이가 더욱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자본주의적 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 형식을 올바르게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민속놀이를 이용한 경제교육이 충분히 그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논문은 기존의 순수한 놀이 차원에서의 연구를, 민속놀이에다 시대변화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접목시킴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경제교육방안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지식과 삶의 화해교육, 조기경제교육, 뿌리경제교육 및 생활경제교육 방안으로서 발전시켰는 바,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IV. 우리 전래동화의 활용가능성

1. 경제교육에 문학작품의 활용에

동화나 소설을 경제교육의 자료로 활용한 시도는 아직도 미미한 편이다. 대학교육에서 활용된 사례로서 Hartley(2001)와 Kish-Gooding(1988)을 들 수 있다. Hartley의 경우에는 경제학의 주요 주제에 활용될 수 있는 책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로빈슨 크로스, 개미와 베짚이, 오만과 편견, 베니스의 상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흥미를 가지며,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하여 경제개념을 익히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사고하는 습성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읽는 것 자체로도 유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개의 경제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무미건조한 몇 줄의 경제학 책을 읽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책 읽는다고 한다. Kish-Gooding은 수리 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문학작품은 일상의 우리 생활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한다.¹⁰⁾ 이 논문은 고리대금업이 허용되는 윤리적 과도기를 배경으로 삼은 셰크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상인”을 분석하고 있다. “영화로 읽는 경제학(최병서, 2001, 형설출판사 간)”은 영화의 내용을 경제개념교육에 활용하려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이다.¹¹⁾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경제교육에 경제동화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김혜영(2000)의 논문에는 유치원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목록을 80개 소개하고 있다. 배인호(2001)의 논문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경제개념에 적용될 수 있는 동화와 이를 활용한 구체적 교육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제사회화에 전래동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McGurk가(1992)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래동화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전래동화 속의 도덕적 가치관이 나이를 많이 먹은 어린이일수록 전형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였다. 조사결과 이 가설은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옥(2001)은 동화를 활용한 경제교육이 유아들의 경제개념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일부 유의적인 영향도를 발견하였다. 어린이 경제교육에 동화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아직 미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2. 전래동화의 활용가능성

10) 본 논문의 참고자료 목록에서는 문학작품을 활용한 사례를 더 얻을 수 있다.

11) 속담을 경제교육에 응용하려는 예로는 김상규(2001)가 있다. 이 논문은 의미 있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대상이 되는 경제이론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1) 전래동화의 성격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가 담긴 전래동화를 어린이 경제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국내외 동화 모두 경제교육에 활용될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전래동화는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다. 먼저 전래동화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린이 연령단계의 이해와 관심에 맞는 주제, 생동감이 있는 플롯, 기억되는 인물의 성격, 독특한 문체로 구성된 것을 전승동화 혹은 전래동화라고 한다(도순희, 2001, p.9). 전래동화는 서민의 감정을 담고있는 교육적인 이야기로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도덕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현실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어린이들의 현실적 불만을 상상적으로 보상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져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허구이다. 전래동화는 해학과 풍자를 통하여 유쾌한 결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들은 전래동화를 가까이 접하면서 성장하므로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들은 전래동화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사회의 성 역할, 사회윤리, 서민의식, 지혜 등을 배운다. 특히 어린이들은 주인공을 통하여 다양한 세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여러 상황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된다.

등장인물들은 대개 뚜렷하게 대비되는 성격과 배경을 갖는다. 착하고 악하고, 가난하고 부자이고, 약하고 강하고, 바보스럽고 약삭빠르고, 사회적 계층이 낮고 높고, 이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식으로 대비된다. 착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바보스럽고, 사회적 신분이 낮고, 이타적인 속성을 갖춘 인물이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는 쪽의 결말로 유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순한 구성과 짧은 내용에 빠른 전개를 보이기 때문에 내용 전체적으로 인과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특징이다.

우리 전래동화는 유교적 윤리관의 빈번한 개입 및 이로 인한 마력적인 느낌의 제거, 현실성, 염세적, 이상적인 초현실 세계의 모습 등이 특징이다(도순희, 2001, p.13).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전래동화는 양반에게 눌러 사는 서민들이 신분사회에서 느끼는 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믿음, 가난하지만 바르게 더불어 살려는 이상이 전반적으로 스며 있다.

우리 전래동화는 현대적인 경제활동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비록 현대와 같이 복잡하게 분화된 경제활동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내용은 현대와 큰 차

이가 없다.

2) 기초경제개념의 이해

이제 경제기초개념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전래동화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조상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옛이야기의 제목과 내용은 “우리의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 1996, 1999)”와 “춘향전·심청전 외(주문식, 2000)”에 따르기로 한다.

기초경제개념과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분업과 시장, 희소성,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득의 원천, 경제적 유인, 화폐, 가격, 소비와 저축, 빈부의 격차, 정부와 조세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¹²⁾

자본주의 경제체제 : 자본주의체제는 재산권의 보장과 영리추구를 통해 부를 축적함으로써 경제적 계층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능력사회라는 점이 특징이다. 소유권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¹³⁾ 어린이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해시키는 좋은 방법은 다른 경제체제와 비교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래동화는 활용가치가 있다.

우리 옛이야기는 신분사회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내용이 상당히 묘사되어 있다. 양반들은 신분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서민들이 힘들여 모은 재산을 착취하기도 하고, 나쁜 정부관료들은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빼앗기도 한다(밥보자기와 불기, 이상한 향아리, 이상한 샘물, 은혜 깊은 개구리, 백정 삼촌이 된 어사, 말도 아닌 말, 꼭두각시와 목도령, 산딸기와 돌배). 신분사회에서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면 비록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가졌어도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소금장수의 아들). 이 때문에 양민들이 부를 축적하여 양반신분이나 관직을 사기도 한다(양반전, 땅벌군수).

어린이들에게 이런 신분사회와 현재의 사회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 능력보다는 신분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현 경제체제보다 비효

12) 여기에서 취급되는 기초경제개념들이 몇 세에서 형성되는가는 신동주 외(1997), Lewis et al.(1995), Burris(1983), Lea et al.(1987)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소유권에 대한 이해를 “남의 것을 훔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알아본 결과, 4세 정도의 연령에서는 도덕적 이유로, 8세 정도의 연령에서는 도둑맞은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12세 정도의 연령에서는 멧가를 지불하여 취득했다는 이유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멧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본다. 경제시스템을 이해하는 단계는 대체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이다(Burris, 1983, p.804). 소유에 대한 더 많은 정리는 Lewis et al.(1995, pp.28-31)을 참조하기 바란다.

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신분사회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실학자 박제가의 “북학의”도 활용할만 하다(이익성, 1992, pp.113-115).

전래동화 속에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발견된다(이상한 샘물, 이상한 항아리, 슬기로운 재판).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야기 속의 소유권 분쟁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는 것도 소유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¹⁴⁾

분업과 시장 : 우리의 옛이야기에서는 현대와 같이 복잡한 직업의 분화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와 같은 분업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이나 능력에 따라 특화된 직업을 갖고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한다. 즉, 경제 주체간의 상호의존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이다.

주인공들의 직업은 주로 품팔이, 머슴, 장사치, 나무꾼, 농사꾼(소작농), 어부, 정부관료 등이다. 가장 가난한 계층은 품팔이, 머슴, 나무꾼, 어부 등이다. 이들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택한 것이다. 평야에서는 품팔이, 머슴, 또는 소작농이 되고, 산골에서는 나무꾼이 되며, 강가에서는 어부가 된다. 경제적으로 중간계층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한다. 이들은 농사지를 땅을 가지고 있거나, 장사할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에는 재산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개 부자는 양반 관료 계층이다(선비는 직업이 아니므로 제외시켰다). 이처럼 직업의 분화는 현대와 같이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꾼들은 나무를 팔아서 그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한다(나무장수와 요술바가지). 산촌에 사는 숲장수는 숲을 팔아서 생선을 구입하기도 한다(효자와 호랑이). 소금장수는 평야지대까지 소금을 날아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소금장수 아들).

“소금장수 아들”은 모든 직업은 신분적 귀천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서로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소금장수가 없다면 음식의 맛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이 없다면 나무장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 있겠는가!

어린이들에게 직업의 분화가 어떤 요인으로 일어나는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지리적 특성, 각자의 능력,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희소성 : 희소성은 욕망에 비하여 이를 충족시킬 대상을 얻는데 필요한 자원이

14) 사물의 소유에 대한 인식은 대상물과 물리적 관계에서 계약과 같은 제도적 관계로 발달한다.(Lewis et al., 1995, p.30)

부족한 상태이다. 경제학에서 희소성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또, 합리적 선택의 기준으로서 기회비용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은 개념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 전래동화에는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양한 도구들도 등장한다. 박(홍부전), 냄비(이상한 냄비), 밥주걱(잉어의 보은), 항아리(이상한 항아리, 이상한 수수께끼), 호리병(꼭두각시와 목도령), 구슬(은혜 깊은 개구리, 여섯 모 난 야광주), 바가지(나무장수의 요술바가지) 등이다. 이것들은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만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 준다. 즉,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어린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물건을 갖고 싶어할 것이다.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물건을 갖게 되면 무엇을 가장 갖고 싶은지 순서대로 적어보게 할 수 있다. 또 이런 물건들을 가질 수 없는 현실적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봄으로써 희소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현실적인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 희소성이 없는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희소성의 세계에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선택에서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선택으로 인하여 포기되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포기된 것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수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이란 최선의 선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선택에서 얻은 수익이 기회비용이상이어야만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기회비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만 한다.

어린이들은 정보의 활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앞의 욕구에 이끌려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쉽다. 어린이들에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공간적·시간적으로 넓은 시야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래동화는 인과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는가를 잘 깨닫게 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결과를 생각하는 신중한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 여러 이야기를 이용하여 선택에는 어떤 댓가가 따르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는, 수익 뒤에는 반듯이 댓가가 있

으니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닭값과 모이값), 보다 큰 이득을 위하여 작은 이득을 포기하는 이야기(장님의 피, 인삼과 도라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먹여주고 재워주고, 송아지와 바꾼 무,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큰 손실보다는 작은 손실을 선택하는 이야기(노루 왕의 의리, 천 냥 짜리 거짓말) 등이 있다.

근시안적인 판단이 주는 손실에 대한 이야기로서 “원님이 된 어부”, “망신당한 선비들” 등이 있다. “세끼 서발이”는 한 바보 총각이 우연한 교환의 과정을 통하여 세끼가 자신의 색시가 되는 처녀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어, 각 교환에서 판단의 합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유인 :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은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다. 경제이론은 경제적 유인의 변화를 통하여 경제원칙을 추구하는 경제인의 행동변화를 설명한다.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유인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유인을 확대해석하면 경제력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다.

경제이론에서 경제적 유인은 한계주의원칙에 따라 변화된다. 즉, 한계수익이나 한계비용이 변동하면 합리적인 경제행위도 변화된다. 어린이들에게는 한계주의원칙을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옛이야기에 이런 원리를 세세하게 다루는데 적합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유인의 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은 있다. 경제적 유인으로 인하여 효자노릇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효자 만든 금반지, 세 딸과 양아들, 시아버지를 팔려다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헛고생을 하는 이야기(기왓장과 호랑이, 한 평생을 쓰고도 남는 것, 얼어 붙은 호랑이) 등이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경제적 유인에 의하여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은 각자 자신들도 이렇게 물질적 보상에 유인되어 행동이 변화된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 소득의 원천 : 생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 숲을 굽는 것, 나무를 하는 것, 그릇을 파는 것, 소금을 파는 것 등이 모두 생산활동이다.

동화 속에서 생산활동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수입의 원천이 머슴살이나 품팔이 등 노동임을 보여주는 곳은 많다(눈치 삼년 뛰엄 삼년, 종이에 쓴 당나귀, 심청전). 생산된 물품을 장에 내다 팔아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묘사되는데, 이것은 생산자와 상인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다(신통한 점괘, 나무장수의 요술 바가지, 효자와 호랑이 등). 간혹 상인이 거래

차익을 이용하여 소득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용기장수나 소금장수가 대표적인 예이다(용기장수와 개구리). “닭값과 봉값”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로서 상인이 어떻게 거래차익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노동을 공급하고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어 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¹⁵⁾ 따라서, 나뭇꾼, 농부, 솥장수 등이 모두 노동의 댓가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것이다. 소금장수나 용기장수가 직접 소금이나 용기를 만들지 않는데도 거래차익을 이용하여 수입을 벌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¹⁶⁾ 상업활동과 같이 이런 무형의 상품에 댓가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으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¹⁷⁾ 어린이들에게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고,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며, 상업활동도 직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동화 속의 내용에서 등장인물들이 장사를 나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의 근원은 생산활동이다. 확대재생산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다(십 년 보리죽, 벼 낱알 한 개로 논을 산 며느리). 이들 이야기에서는 적절하게 투자대상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성실하게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 증식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양반전”이나 “허생전”은 신분사회에서 양반이 비생산적인 학문에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 “배운 사위와 못 배운 며느리”에서는 실제 생활에 도움도 안되

15) 신동주 외(1997, p.352)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중 9세에서 약 80%, 12세에서 95% 이상이 부모가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목적으로 직장에 다닌다고 대답하였다.

16) G. Johoda의 연구에 의하면, 11세 정도가 되어야 이윤의 개념을 터득하기 시작한다(Lweis, 1995, p.26). 또 Johoda의 다른 연구에서는 은행의 여수신 금리차를 완전히 이해하는 어린이는 14세에서 겨우 25%에 불과했다. 아직은 경제개념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해되고 상호 연결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이 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신동주 외(1997, p.354)의 조사에 따르면, 가게의 물건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높다”고 파악하는 우리나라 어린이는 9세에서 약 5%, 12세에서 약 18%, 15세에서 약 28%에 불과하다. 물론 선택지에는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나 “공장에서 정한 가격”과 같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들이 경험가능하지 않은 세계, 특히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다.

17) 신동주 외(1997, p.358)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이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것도 이윤원리를 추론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는 지식의 무가치함을 보이고 있다.

소비와 저축 그리고 이자 : 경제학에서 저축은 소득을 미래와 현재소비에 적절하게 배분한 결과이다. 즉, 저축이란 미래소비를 위하여 현재소비를 지연시키는 과정이다. 노동과 저축을 연관지어 생각하면, 저축은 노후에 노동을 적게 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미리 공급한 노동의 대가를 부로 축적해 두는 과정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소비는 미덕에 해당된다. 생활물자가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치관 자체에도 차이가 있었다.

현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린고비”와 같이 맹목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파리 다리에 묻은 간장을 빨아먹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수원까지 쫓아간 것(유창근, 1997, p.275)도 기회비용을 망각해버린 비합리적 행위이다. 합리적인 저축은 미래에 쓸 것을 염두해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인내심을 가지고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십년 보리죽”이 있다.

저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은 저축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저축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돈이나 재산으로 모아 두는 경우(고삿섬과 고삿돌, 장님의 띠, 허생전),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나무장수의 돈 오 백 냥, 도깨비 도움으로 부자가 된 나무꾼, 허생전,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외상으로 남겨두는 경우(나무장수의 돈 오 백 냥, 나무장수의 요술바가지) 등이다.

경제학에서는 저축의 경제적 유인으로 이자를 거론한다. 남에게 돈이나 곡식 등을 빌리면 전래동화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갚는다(나무장수의 돈 오 백 냥, 양반전,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허생전, 저승빛). 그러나, 외상인 경우에는 이자가 없다. 즉, 남의 돈을 불가피하게 빌리는 경우에만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자금을 이용하는 내용은 “심청전”에서 나온다. 뱃사람들은 심봉사가 평생 이자를 받아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준다. “허생전”을 보면, 허생이 빌린 돈을 되갚을 때 변씨는 일 푼의 변리만 계산한다. 이 때 허생은 자신을 장사치로 아느냐고 꾸짖으면서 빌린 돈으로 변 돈 은자 십 만냥을 몽땅 던져두고 간다. 상업적인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리수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비인 허생은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상인들이나 하는 천박한 행위로 보고 있다.¹⁸⁾

18) Kish-Gooding(1988, p.332)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베니스상인”은 유대교 교인인 샤이룩에게서 기독교 교인인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구약성

어린이들에게 이자가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도리어 보관료를 주어야 한다고 추론하고 있다.¹⁹⁾ 이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금된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금자의 이자수입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개념의 발달단계로 보면 고립되어 쌓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이다.²⁰⁾

이자라는 유인으로 저축의 동기를 설명하기보다는 “나무장수의 요술바가지”에서처럼 명절에 쓸 돈으로 저축을 한다든지, “십 년 보리죽”과 같이 미래에 부자로 살기 위하여 저축을 한다든지, 저축은 맹목적인 행동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²¹⁾ 또 우리 전래동화에서처럼 현실에서도 이자는 언제나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자지간이나 친구지간에 금전거래가 있을 때 이자를 받을 것인지, 또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시켜야 한다. 허생이 우려하듯이 금전관계가 잘못돼서 인간관계까지 깨뜨리는 경향도 종종 있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화폐 : 경제이론에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거래빈도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 여유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수단, 즉 가치저장수단 기능도 중요시된다. 그러나, 경제인류학의 연구를 보면, 실제로 화폐의 기능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²²⁾ 우리 전래동화에서 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

서에서는 형제에게는 이윤이나 이자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야곱의 후손만 형제로 보는 반면,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보고 있다. 샤이록이 안토니오에게 이자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이윤을 목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본다.

- 19) 신동주 외(1997, p.353)의 조사에 따르면, 저축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아는 어린이는 9세에서 약 35%, 12세에서 약 32%, 15세에서는 도리어 줄어든 약 18%였다. 중학생에서 도리어 이자를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현상에 대한 추론을 잘못하게 되는 일종의 퇴행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20) 경제사회화에서 발달단계이론가들 다음과 같이 경제개념이 발달된다고 본다.
 - 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
 - ② 독립적으로 개별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
 - ③ 독립적인 개념들을 연결지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단계(Lewis et al., 1995, p.23)
- 21) 신동주 외(1997, p.352)의 조사에 따르면, “친구의 선물이나 내가 쓸 것을 사기 위해서”라고 답해서 목적성을 띤 저축은 9세에서 약 43%, 12세에서 약 56%, 15세에서 약 39%였다. 반면, “그냥 쓰고 남아서”라고 맹목적인 동기를 표시한 어린이는 9세에서 약 26%, 12세에서 약 34%, 15세에서 약 31%였다.
- 22) 경제인류학의 연구를 보면, 화폐는 본래 시장에서 거래의 매개수단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지불수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경제이론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화폐의 본래 기능을 거래의 매

먼저 화폐의 취득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일을 해주고 받는 경우(심청전, 잉어의 보은, 종이에 쓴 당나귀, 이상한 냄비), 상품을 팔아서 번 경우(내복으로 산다, 나무장수의 요술바가지, 천 냥 짜리 거짓말, 허생전, 효자와 호랑이, 인삼과 도라지), 남에게 빌린 경우(허생전, 천 냥 주고 산 아버지), 행운으로 얻는 경우(이상한 항아리, 이상한 냄비, 은혜 갚은 개구리, 흥부전, 지네 미인), 보답으로 받는 경우(이상한 샘물, 장승이 준 삼 백 냥, 흥부전, 먼지 건달), 내기에서 이긴 경우(천 냥 짜리 거짓말, 원님이 된 어부), 빌려주었다가 받은 경우(저승빛, 저승에 있는 곳간, 허생전, 눈 뜬 사람을 속인 장님), 노자 돈으로 받은 경우(송장 치고 부자된 사람) 등이 있다.

다음으로 화폐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효자와 호랑이, 닭값과 봉값, 송장 치고 부자된 사람, 나무장수의 요술바가지, 만석꾼이 천석꾼이 된 내력, 거저 먹은 술, 소장수 원님),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여우 누이, 효자와 호랑이, 나무장수의 돈 오 백 냥, 잉어의 보은, 나무장수의 요술바가지), 내기에 사용하는 경우(원님이 된 어부), 빌려주는 경우(허생전, 천 냥 주고 산 아버지),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장님의 피), 남에게 보답하는 경우(흥부전, 장승이 준 삼 백 냥, 엉터리 풍수 노릇, 지네 미인), 부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돼지가 된 대감, 땅벌 군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닭 잡은 때, 닭값과 모이값) 등이 있다.

어린이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돈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돈의 세계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이 돈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것의 용도를 정리해 보도록 함으로써 돈의 기능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론적으로 화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시장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상당수의 옛이야기가 물물교환경제를 전제로 하지만, 화폐의 매개변수적 기능도 “옹기장수와 개구리”에 잘 나타나 있다. 옹기장수가 돈이 없어서 쌀로 준다가에 팔지 않았다고 말하자, 쌀도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대꾸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이용하면 화폐라는 개념의 상대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 쌀도 돈이라는 인식은 쌀도 당시의 경제에서는 광범위한 일반적 수용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은 한국은행권이나 동전만 화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화폐란 구체적인 형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권과 달리 옛날의 품앗이, 상품권, 현금화는 안되지만 마일리지제로 적립된 금액, 쿠폰과 같이 특별한 용도나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는 현재에도 일반화되어 있다. 극단적인 예로 수표

개수단기능, 즉 거래의 원활성을 위해서 발명된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다(양승필, 2000, pp.134-136; 원용찬, 2002, p.4)

와 같은 것은 작은 단위의 결제에는 사용되지 않는 제한된 용도의 화폐인 셈이다

화폐는 상품의 거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인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세계에서도 돈이 있으면 친구들이 따르거나, 돈을 이용하여 친구를 만든다. 이러한 힘이 사회 전반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돈을 이용하여 벼슬을 사거나(땅벌 군수, 돼지가 된 대감), 양반신분을 사는 것(홍부전, 양반전) 등은 활용하면 이러한 힘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 경제이론에서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도 놀이경제의 경험이나 부모와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분적으로는 이해한다. 물론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해진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²³⁾ 그러나, 현실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초등학생들은 사회 전체현상을 파악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이론을 끌어다 가격을 설명하기보다는 희소성과 가격을 연결지어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물가(지수)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평균화된 가격의 변동은 어린이들에게는 이해시키기 어려운 개념이고 우리 옛이야기 속에서도 적절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 전래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의 개념들을 살펴보자. 우선, “허생전”에서 허생이 과실(果實)과 말총을 독점하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큰 이득을 얻는 내용이 나온다. 바로 공급을 줄임으로써 희소성을 증가시키는 독점가격이다. “신기한 샘물”에서도 병이 치료되는 샘물을 욕심 많은 영감이 독점함으로써 돈을 받게 된다. 역시 독점가격의 예이다. “신기한 샘물”에서 욕심 많은 영감이 샘물을 팔라고 제시했던 가격은 기대수익을 추산한 것이다. 자본재의 가격결정원리이다. “내복으로 산다”에서 남편이 장에서 금덩이를 더 이상 지불할 의향이 없는 최고가격으로 판 것은 가격차별화에서 수요가격에 해당된다. “닭값과 봉값”에서 봉이 김선달이 닭을 봉값에 산 것도 가격차별에 해당된다. “대동강 물길을 바꾼 사람”에서 대동강 물길이 평양의 중심으로 물길이 바뀌면서 물장수는 사라지게 된다. 물의 희소

23) 신동주 외(1997, 354)의 조사에서 “나라와 공장에서 물건값을 정한다”고 답한 어린이들의 비율은 9세에서 약 58%(5%), 12세에서 약 57%(18%), 15세에서 약 60%(28%)나 된다. () 속의 숫자는 이중에서 나라에서 정한다고 답한 비율이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로 시야가 넓혀지면서 정부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 “물건이 부족하면 보통 물건값은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세의 약 51%, 12세의 약 83%, 15세의 약 92%가 올라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성이 사라지고 자유재로 바뀌면서 더 이상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기한 샘물”에서 다른 샘물에서도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 발견되고 이 샘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자, 기존의 샘물은 돈주고 팔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서울 양반에게 풀먹이기”는 희소성이 높아지면 경쟁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인삼과 도라지”, “닭 잡은 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생산비나 사용가치와 연결짓기 쉽다.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이용하면 이런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대동강 물길을 바꾼 사람”에서 동일한 물인데도 가격이 왜 떨어져버린 것일까? 이것은 사용가치와 물값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좋은 예이다. 반면, “허생전”에서 허생이 말총을 모두 사들이자 말총값이 폭등한다. 이것은 말총의 생산비와 말총가격이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엄밀한 말하면 꼭 옳은 개념은 아니지만, 가격은 수요나 공급이 통제되면 희소성이 달라지면서 오르고 내리게 된다는 정도로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²⁴⁾

빈부의 차이 : 빈부의 차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 전래 동화 속에서도 빈부의 차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데 부자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한 경우(십 년 보리죽, 허생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부모에게 상속을 많이 받은 경우(홍부전),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경우(빨간 부채 파란 부채, 냄새 맡은 값), 권세를 이용하여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경우(돼지가 된 대감, 땅벌 군수, 이상한 샘물), 남의 것을 빼앗은 경우(무지개는 왜 뜨나?),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경우(홍부전) 등이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생산요소를 가지지 못한 경우(삼 년 걸린 과거길), 양반이나 관료에게 착취를 당한 경우(꼭두각시와 목도령, 우렁이 색시, 밥보자기와 불기, 양반전, 백정 삼촌이 된 어사), 남에게 많이 베풀어서 어려운 경우(파란 부채 빨간 부채, 저승에 있는 곳간), 나쁜 행동으로 천벌을 받은 경우(홍부전, 파란 부채와 빨간 부채, 은혜 값은 개구리 등) 등이다.

시장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경제학은 얼마만큼의 빈부의 격차는 발전에 순기능을 한다고 본다. 또 빈부의 격차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인적자본이론은 소득이 후천적으로 축적되는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후천적으로 생산능력을 결정짓는 교육은 선천적 능력과 교육비용의 조달 능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에 반하여, 분단노동시장이론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사

24) 수요-공급이론은 완전경쟁시장에서만 적용된다. 현실에서 가격결정이론이 적용에 제약 받는 것은 일반화된 독과점상황 때문이다. 또 많은 거래는 흥정과정을 거치는데, 이 이론은 이윤극대화에 근거하기 때문에 흥정과정을 개입시킬 여지가 없다.

회적 차별에 의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갖게 된다고 본다.

우리 전래동화 속에서도 신분사회에서 양반계급의 착취로 인하여 서민들이 경제활동의 동기를 잃어버리는 내용이 가끔 등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보니 어느 날 운명이 바뀌더라는 식의 내용이다. 어린이들은 아직 경제체제나 사회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대부분 자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학교 정도가 되면 빈부의 격차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높아진다(신동주 외, 1997, pp.358-359). 우리의 옛이야기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보여 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정부와 조세 : 현대 경제학에서 정부의 주요한 역할은 시장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보조적 개입과 분배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부의 재분배이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세의 강제적 징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나친 과세와 보조 등의 정부개입은 경제활동의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실패를 낳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전래 동화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임금, 어사, 원님 등의 행동으로 대변된다. 어사 박문수는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백성을 보호해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밥보자기와 불기, 백정 삼촌이 된 어사). 임금은 봉이 김선달에게 닭을 봉이라고 속여 받은 돈을 되돌려 주라고 호령하기도 한다(닭값과 봉값). “눈 뜬 사람을 속인 장님”에서 원님은 경제적 약자의 편에서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한다. “어린 원님”에서 어린 원님은 이방이 부당하게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한다.

반면, 부패된 관료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백성들을 착취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의욕을 꺾는 이야기도 있다(꼭두각시와 목도령, 고삿섬과 고삿돌, 원인지 꺾데긴지, 빨난 도둑놈). “꼭두각시와 목도령”에서는 관리의 착취를 피하여 산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다.

정부가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내용도 있다(닭 잡은 때, 송장치고 부자된 사람, 소장수 원님, 양반전, 무지개는 왜 뜨나?, 흥부전). “양반전”은 환자(環子)를 쓴 양반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양반신분을 거래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창(社倉)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나온다. “재주 있는 삼형제”에서는 삼형제가 관청의 곳간에 있는 곡식을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대신 벌을 받는 내용이다. 이 것은 “홍길동전”의 주요한 줄거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사회보장에 힘쓰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국민

들의 안정된 생활보다는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행위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신기한 샘물”이 있다. 한 나뭇꾼이 병을 치료하는 신기한 샘물을 발견하자,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욕심 많은 영감은 원님에게 수익금을 반반 나누어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독점적 소유권을 얻어낸다는 이야기다.

우리 전래동화는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을 제공해 준다. 정부의 역할은 어린이들에게는 경험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이해시키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3) 경제적 가치관

어린이경제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경제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경제기본개념이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건전한 경제적 가치관은 경험을 통하여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전래동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다. 외국의 전래동화와 우리 전래동화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가치관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전래동화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 조상의 경제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거래의 대상 :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의 대상은 법적으로도 제약을 받지만,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전한 사고를 형성시키는 것도 어린이경제교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우리 전래동화 속에서는 현대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래대상도 등장한다.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천냥을 주고 산 아버지, 시아버지를 팔려다가),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는다거나(홍부전), 색시를 내기에 건다거나(새끼 서발이, 원님이 된 어부), 사회적 신분이나 관직을 거래하는 경우(양반전, 돼지가 된 대감, 땅벌 군수) 등이 나온다. 이런 거래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거래의 대상이 윤리적·문화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기심과 축적의 정당성 : 경제이론에서 다루는 경제인은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경제원칙을 추구해 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의 도구주의적 입장에서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일 뿐이므로 현실의 전형적인 인간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경제이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의 행위를 모두 이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있다. 설사 인간의 행위가 이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이기심으로 인해 윤리를 망각할 정도여서는 안된다.²⁵⁾

우리 전래동화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신기한 샘물), 남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거나(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흥부전), 힘을 이용하여 남의 것을 빼앗거나(원님이 된 어부, 이상한 항아리, 잉어의 보은, 신기한 샘물, 무지개는 왜 뜨나, 은혜 갚은 개구리), 남의 것을 훔치거나(소금을 내는 맷돌, 눈 뜬 장님을 속인 장님), 남을 속이거나(이상한 이파리, 닭값과 봉값, 고삿섬과 고삿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땅벌 군수, 돼지가 된 대감), 남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떡여주고 채워주고, 흥부전), 이득을 볼 욕심으로 내기를 하거나(새끼 서발이, 원님이 된 어부, 소장수 원님, 배고프니 먹고 보자), 부당한 이득(닭값과 봉값, 인삼과 도라지, 닭값과 모이값, 닭 잡은 메)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정당한 축적이란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잘 계획을 세워 땀흘리고 절약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소가 된 사람, 벼 낱알 한 개로 논을 산 며느리, 십 년 보리죽).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이득만 챙기는 것도 죄가 된다(세 친구, 저승길도 같이 가라).

우리 전래동화는 득실을 따지지 않는 행동이 인간의 진실된 품성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주인공의 경우에는 대개는 행운이 찾아와서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한편 경제적 유인에 의하여 유발된 행동은 가식에 불과하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세 딸과 양아들). 이기심에 휩싸이면 아집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송아지와 바꾼 무, 배짱 좋은 형제, 대동강 물값, 닭값과 봉값, 호랑이의 웃음, 서울 양반에게 풀 먹이기, 소금을 내는 맷돌, 흥부전).

금기와 인내심 :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서 뭔가를 성취하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일시적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는 행위는 사리판단을 흐리게 하여 결국 작은 이득을 얻는데 그치거나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내 끝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어린이 경제교육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 전래 동화는 금기(禁忌)를 지키지 않아서 불행에 빠지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한다(삼 년 걸린 과거길, 우렁이 각시, 나무꾼과 선녀, 눈치 삼 년 뛰엄 삼 년, 소가 된 사람, 구렁덩덩 신선비). 물론 이를 잘 참고 이기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25) 이제민(1998, p.332)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맷가를 바라고 하는 경제행위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 이러한 경향은 다소 약화된다.

얻기도 한다.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에 봉착해도 굳건히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인내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내용들이다.

여러 이야기는 노력 없이 한 순간에 분에 넘치는 재산을 얻으려는 태도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무장수와 요술바가지”에서는 자식들이 서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가지를 깨버리고 만다. “이상한 냄비”에서는 부인이 솜 없이 냄비를 달구는 바람에 복판이 빠져버린다. 또 “쌀 나오는 구멍”에서는 일시에 많은 쌀을 꺼내려고 구멍을 더 파는 바람에 구멍이 메워져 버리고 만다. “원님이 된 어부”나 “세 글동무”에서도 마지막에서라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불행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경제적 부에 만족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내와 성실은 결국 행운으로 돌아온다(불씨와 동자삼, 내복으로 산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시에 큰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경마, 노름, 주식 등에 손을 댔다가 아예 빚더미 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을 종종 본다. 전통 사회에서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정신은 권장되어야 한다.

화폐의 가치관 : 경제이론에서 화폐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화폐간의 대체가 완전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의미가 부여된 화폐간 대체는 불완전하다. 화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쉽게 들어온 돈은 헛되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 경제교육에서는 화폐에 의미를 부여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우리 전래동화에서 보면 화폐도 써야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재물이나 돈을 꼭 써야할 곳에 쓰면 행운이 온다. “지네 미인”에서는 선녀가 돈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죄를 씻어 하늘로 올라간다. “나무장사의 돈 백 냥”과 “나무장사의 요술바가지”에서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무장사가 외상값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장승이 준 삼백 냥”에서 어사 박문수는 장승이 좋은 일을 해서 마련해준 삼 백 냥이 여자의 목숨을 구하는데 사용하라는 돈임을 깨닫는다. “잉어의 보은”에서는 십 년 머슴살이로 번 돈 서 푼으로 잉어의 목숨을 구해준다. “허생전”에서는 돈 삼십 만 냥으로 도둑들을 설득하여 이상국을 만든다. “대동강 물길을 바꾼 사람”에서는 한 물장수가 물을 길어다 판 돈으로 잉어를 구해준다.

이 이야기들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과연 써야할 곳에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라는 교훈을 준다.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나만의 이득을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개인주의적 경제이론의 관점이다. 그러나, 위 이야기들은 물질주

의(materialism)를 경계하고 항상 더 필요한 곳을 생각해 보라는 공동체적 관점을 담고 있다. 써야할 곳에 재물이나 돈을 사용할 때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사회적 이득이 환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않거나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불행의 씨가 된다. “허생전”에서 허생은 장사해서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일본과 무역하여 번 돈 은자 오백만 냥은 아예 바다에 버리고 돌아온다. 돈과 재물은 취하려는 태도는 근심의 씨앗이 되고, 이를 잘 쓰면 (버리는 것까지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사용된 돈들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취득과정에서 그만큼 큰 댓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이다. “심청전”을 보면, 뽕덕 어미는 심봉사가 장래에 생활을 꾸리기 위해 빌려 준 돈을 몽땅 찾아다 탕진해 버린다. 심봉사는 심청이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이것을 더 안타까워 한다.²⁶⁾ 어린이들에게 돈이 그들의 손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하고, 돈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 소비를 상당히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⁷⁾

나누는 삶 : 우리 전래 동화 속에서는 나누는 삶을 강조한다.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위하여 베푸는 이타적인 행위를 경제이론에서는 비합리적이고 규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선택기준을 물질적 가치에 두지 않고, 효용수준으로 놓는다면 가치관에 따라서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반복게임모형에서는 이타성이나 협력도 이기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우리 전래동화에서는 동기의 순수성을 중요시한다. 나누는 행동의 동기가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성에서 비롯될 때 착하고 순수하다(나무장수의 돈 백냥, 나무장수의 요술바가지, 잉어의 보은, 대동강 물길을 바꾼 사람, 신기한 샘물, 두꺼비와 지네, 빨난 도둑놈). 놀부처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허생도 무능력을 질타하는 부인에게 목적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것일 뿐, 모은 재산을 결국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예전과 같은 가난한 선비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의 이득만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극대화이론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문화의 산물이다.²⁸⁾ 그러나,

26) 돈이나 재산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구획을 지어서 사용을 계획하는 것을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고 한다(Thaler, 1992, p.109).

27) 신용카드의 사용은 지출을 먼저하고 이를 메우는 방식이다. 심리적 회계를 고려하면, 이 방식은 현금을 사용할 때와 돈의 가치를 달리 느끼게 할 것이 분명하다. 돈을 취득할 때 부여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출하는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게 된다.

28) 학문으로서 경제학은 19세기 영국에서 출발하였다. ... 스미스는 개개인이 자기 이익

이론의 예측과 달리 실제 게임모형을 이용하여 나누어 갖기 실험을 실시해본 결과 분배에는 이기성보다도 윤리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Thaler, 1992, ch.3). 나누기는 자본주의체제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보편화된 현상이다. 어린 이들에게 경제이론의 인간상을 합리적인 인간상으로 잘못 교육시킴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퇴색시키는 경제교육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호의적인 기부에 대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이해시켜야 한다.²⁹⁾

화합과 신의 : 우리 전래동화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상 사회로 그리고 있다. 유교문화와 집합주의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목이 깨지면 복과 재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나무장사의 요술바가지, 무지개는 왜 뜨나), 불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물도 미련 없이 버린다(허생전).

신의(信義)의 중요성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강화되어야 할 가치관이다. 승상부인이 삼 백 석을 주겠다고 말을 건네지만, 자기와의 거래를 믿고 있을 뺏사람들이 낭패볼 것을 생각해서 심청은 이를 거절한다. 변씨는 허생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만냥을 빌려주지만 허생은 빌린 돈으로 번 돈을 몽땅 변씨에게 가져다 준다. 반면, “돼지가 된 대감”이나 “땅벌군수”에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집단의 번영은 구성원간에 신뢰와 협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 “지붕으로 올라간 송아지”는 지붕에 송아지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신뢰와 협력이 있는 집안이라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성과 행운 : 우리 전래동화는 행운(幸運)이나 복(福)이라는 용어를 빌어 도덕적 행동의 보상과 연결짓는다. 남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거나, 재물의 축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성실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 재물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라는 관념이다(신기한 샘물,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말하는 남생이, 씨 뿌리는 강아지).

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의 부가 최대로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의 수준이 거의 1위에 접근하는 이 나라에서 나온 극히 개인주의적 발상이다. ... 서양에서 발달한 경제이론은 개인이익이 아니라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집합주의 경제를 다루는 대안적인 경제이론은 아직 없다(차재호, 나은영, 1995. p.112). 참조적으로 53개국의 문화를 비교·연구한 이 책에 의하면, 개인주의성향은 미국이 1위, 영국이 3위, 한국은 27위이다.

29) 호의적인 기부에 댓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호의적인 기부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Lee et al., 1987, p.263).

사람에게는 주어진 복이 있다(만석꾼이 천석꾼이 된 내력, 내 복으로 산다). 그러나, 꼭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제복을 적게 타고난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삼 년 걸린 과거길, 세 가지 부탁, 남의 복을 빌려다가). 착한 행동을 하여 행운이나 복으로 얻게 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통제범위 내에서만 신비한 마력을 갖는다(신기한 샘물, 이상한 냄비, 이상한 향아리, 나무장수의 요술바가지, 꼭두각시와 목도령, 씨 뿌리는 강아지, 말하는 남생이, 술이 나오는 그림). 만약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빼앗으면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신기한 샘물, 이상한 향아리, 은혜 깊은 개구리, 원님이 된 어부). 따라서 복이라는 것은 대개 바른 삶에 대한 보상이다. 신비한 마력도 어떤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다. 즉, 아무나 그 마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옛이야기 속에서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나에게 베푸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저승에 있는 공간”에서 보면, 이승에서 남을 돕지 않은 사람은 저승에 있는 공간이 텅텅 비어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된다. 반면, 이승에서 남에게 베풀면서 가난하게 산 사람은 저승에서는 풍요롭게 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저승 빛”에서도 나온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내세를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전래동화는 우리 고유의 경제적 가치관을 교육하기에 좋은 자료들이다. 특히 물질주의에 빠져서 눈앞의 이득에만 급급한 나머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신의 를 쉽게 저버리는 병든 현대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관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³⁰⁾ 사회 구성원간에 신뢰(trust)와 협력심을 높여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 나가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줄어서 효율이 높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경쟁의 논리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개인주의문화를 어린이 경제교육에서 전형으로 삼다가는 미국과 같이 사회적 자본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류화선, 2001, pp.77-88).

2. 활용시 유의사항

어린이 경제교육을 대학의 경제이론교육과 혼동하면 안된다. 어린이 경제교육의 내용은 주로 미시경제학분야인데, 현재 대학에서 교육되는 미시경제학은 주로 신고전학파의 화석화된 이론들이다. 신고전학파이론은 개인수준에서 경제현상을 설명하

30)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건전성에 대해서는 Erich Fromm의 {건전한 사회(the sein society)}를 참조하기 바란다.

려는 목적보다는 시장수준에서 경제현상을 설명해보려는 시도로서 이론의 도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이론의 방법론적 본질을 망각한 채 어린이 경제교육을 대학의 경제이론교육과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제인과 어린이 : 어린이들은 경제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그 경제체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능을 익힌다. 어린이 경제교육의 대상과 경제이론 속의 경제인은 현격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경제교육에서는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경험부족,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판단력의 부족, 가치관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경제교육은 이들이 경제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상황에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제이론과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합리적 판단 : 경제학에서 규정하는 합리성을 소위 목적합리성이라고 하였다. 즉, 효용극대화나 이윤극대화와 같이 이미 주어져서 변화되지 않는 목적에 비추어서 합리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행위에서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모든 교환행위가 경제이론에서 묘사되는 것과 같이 잉여를 추구하는 과정은 아니다. 이것은 시장교환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이다. 실제로 호혜와 재배분과 같은 비시장적인 교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장사회는 다만 시장교환의 비중이 높은 사회일 뿐이다. 경제이론의 목적가정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 개인주의문화의 시장교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적인 교환의 목적으로 오해하게 가르쳐서는 안된다. 도리어 경제교육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시장적 교환과 비시장적 교환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경제이론의 목적가정을 전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경제행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막기 위해 색안경을 씌워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경제이론의 목적합리성과 달리 어린이 경제교육에서는 과정합리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어린이들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사고의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 사고의 범위를 넓혀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하나 바른 단계를 거치도록 교육해야 한다.

목적합리성을 잘못 적용하여 “효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양미 삼 백석과 자신의 목숨을 교환한 일은 합리적인가?” 라고 물어서는 안된다. 경제이론을 실증경제학이라고 볼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심청이 자발적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합리적이 않다고 볼 여지는 없다. 문제는 심청의 효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사결정기준을 규범경제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심청의 교환이 합리적인지 재고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심청의 효용함수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 "심청전"을 읽는 사람들은 심청이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 대목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심청이 효행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가치체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교환이 가능하겠는가? 심청과 같은 가치체계를 가지지 않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청은 참 효심이 강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세 딸과 양아들"에서 세 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계산으로 효행을 한 것은 경제적인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세 딸의 행동은 꼭 효행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린이 경제교육에서 위와 같은 동화의 내용을 이용하여 기회비용과 합리성을 교육할 때는 등장인물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전제해서는 안된다.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효용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전통가치관을 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 소비 : 어린이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어린이들의 소비행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의도에서 제기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실증경제학으로서 경제이론을 적용할 때, 모든 어린이의 소비행위는 합리적이다. 설사 어른들이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만족스런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부모가 어린이의 선택을 강요한다면 마치 사회주의 계획기구가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입각한 소비교육은 실제 부모들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즉,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해도 수정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소비교육은 경제이론에 나오는 소비자 의사결정이론을 이해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간 대체나 소비의 기회비용을 교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절약과 저축은 화폐의 취득과정에서 내포되는 의미를 느끼면서 화폐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장래소비에 대한 목적이 설정될 때 진정한 동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은 경제학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주고 흥미를 유발한다. 경제학 책에서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경제개념들이 이야기에 속에서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사고의 폭을 확대시켜주고, 돈이 가지는 의미를 느끼도록

교육해야 한다.

화폐의 출처와 수량 :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화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우리가 특정한 화폐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만 있다면 화폐의 다양한 쓰임새를 깨닫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은 이런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래동화는 화폐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거저 먹은 술”은 막걸리 장수와 동동주 장수가 한 푼 어치의 술을 돌아가면서 팔아줌으로써 두 동의 술이 모두 한 푼으로 모두 거래되는 이야기이다. 화폐는 거래의 매개수단으로서 그 수량이 직접적으로 상품의 거래량과 관련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에게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생산물의 양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도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상한 항아리”에 나오는 항아리에서 돈이 아무리 나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과자나 쌀 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생산되는 상품의 양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현금을 상품처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 “이상한 냄비”처럼 돈이 무한정 만들어지면 개인도 나라도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화폐는 개인에게는 부(富)가 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그 양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뿐이다. 이러한 거시적 개념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굳이 물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면, 거래의 매개수단인 돈의 양이 늘어나면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의 희소성이 커져서 상품의 가격들도 상승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금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만이 제작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나 통화량과 같은 거시적인 개념은 어린이 경제교육에서는 설사 다룬다 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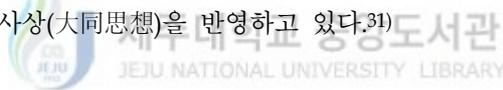
도덕성과 부 :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전래동화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우리 전래동화 역시 타고난 능력보다는 성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더욱 중시한다.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은 결국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이고, 이런 사람이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자본주의의 기본철학이다. 이 철학에서 남을 위한 나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행운도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론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확률적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경제행위는 운명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운이 꼭 도덕적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도덕적인 삶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무너뜨려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늘 나라에 나의 공간이 있어서 이승에서 베푼 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생각은 어차피 입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지만, 바른 경제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조상들의 현명한 착안이 아니겠는가!

경제교육에서 이기심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물질주의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가치관은 현대 시장경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전래동화의 내용을 보면, 부자가 되려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런 소망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남을 해하거나, 남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을 기만하는 등 사람을 축재의 수단으로 삼는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절약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권장된다.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물질주의에 빠져서 자린고비와 같이 쓸 줄을 모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재물이란 다 써야할 곳이 있다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쓰지 않으면 도리어 나에게 근심이 되고 해가 된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경제윤리에 담겨있는 청빈사상(淸貧思想)과 대동사상(大同思想)을 반영하고 있다.³¹⁾



V. 결론

어린이 경제교육은 두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어린이는 사회적 경험이 적고 생물학적으로 인지능력도 미발달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기초경제개념을 추상적인 원리로 이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면 직·간접경험을 늘리고 경제현상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원리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경제이론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 중 이론이 목적으로 하는 쪽만 부각된다. 주류경제이론의 기본적인 경제개념도 이렇게 협소하게 정의된 것들이다. 더욱이 주류경제이론은 이론의 도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

31) 청빈사상은 축적의 경제윤리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또 대동사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분배의 경제윤리이다(조남국, 1994, 제12장). 우리의 전통적 경제윤리는 직업의 소명의식에 기초를 둔 개인주의적 축적윤리만을 포함하고 있는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보다 한 차원 높다.

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들을 실제 존재하는 법칙처럼 이해시켜서는 안된다. 주류 경제학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취지에서는 그런 가정들이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일반인에게는 편협된 시각으로 비춰져 공감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 경제교육은 경제이론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경제교육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서구경제이론의 사상적 시각과 개념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동화를 어린이 경제교육에 활용하면 흥미로운 줄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경제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시키는 가운데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쓰여진 서적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동화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앞의 두 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경제이론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양성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옛이야기는 사회화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기 위한 교육도구였다. 경제교육을 목적으로 굳이 새로운 경제동화를 창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전래동화를 활용하는 것이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최근에 창작된 경제동화는 주제를 딱딱한 경제개념을 학습시킬 목적에 맞추다 보니 아이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끌어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 새롭게 경제동화를 창작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용자도 자료의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화들을 어린이 경제교육 자료로 개발하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래동화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전통적인 경제가치관을 계승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의 전래동화와 우리 전래동화의 경제가치관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기본적인 경제개념들을 교육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옛이야기들의 내용을 분류·제시하고 경제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전래동화는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다양한 경제행위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신분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를 교육하는데 활용할만한 내용이 적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풍부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문제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우리 전래동화를 이용하여 기본경제개념을 교육하게 되면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경제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심리묘사를 이용하면 경제행위를 하면서 주인공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

는가를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다. 이론의 목적에 따라 정의된 획일적인 기본개념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미와 의도에서 경제현상이 이해될 수 있음을 납득시킬 수 있다. 초등학교 경제교육은 경제이론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현상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전제할 때, 경험이 적은 어린이들에게 동화는 좋은 교육자료이다.

어린이 경제교육에서는 특히 가치관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제의 기초개념은 경험이 확대되면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지만 가치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 경제교육에서는 지식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이해를 통한 의미부여과정에서 판단과 행동이 수정되도록 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옛이야기는 경제교육에서 더 없이 가치 있는 자료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제이론이 표면적으로는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이론체계이다. 이론은 일관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잘 실현되는 이상적인 체제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따라서 가치관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서구식 경제가치관을 교육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후쿠야마가 진단하듯이 현대시장자본주의는 물질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가속화시키면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붕괴되고 저효율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류화선, 2001, pp.36-40). 우리도 이제 전통적 경제가치관에 눈을 돌려볼 때가 되었다.

우리의 전래동화는 물질적 이득을 위하여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성실하게 노력하거나 남에게 유익하게 한 행동의 결과로서 재물을 얻는 것은 장려된다. 단,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축적 윤리를 망각하면 안된다. 그렇지만, 재물을 축적하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재물이란 반듯이 바르게 사용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망각하면 역시 사회는 어두워진다.

어린이 경제교육에서 우리 전래 동화를 잘 활용한다면 딱딱하지 않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전래동화가 교육의 현장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8).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김상규(1995). “조선시대 아동교육 도서에 나타난 경제교육”, {대구대학교 초등교육 연구논총}, 제7집, pp.163-181.
- 김상규(2001). “속담을 이용한 경제개념 형성의 현장 적용성 검토”, {초등사회과교육}, 제13집, pp.271-295.
- 김혜영(2000). “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 내용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순희(2001). “전래동화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화선 역(2001). {대붕괴 신질서}. 서울: 한국경제신문.
- 배인호(2001) “동화를 활용한 경제개념 형성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오(1996).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1}. 서울: 현암사.
- 서정오(2000).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2}. 서울: 현암사.
- 신동주, 이재민(1997). “어린이의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한국산업경제학회}, 제10권 제1호.
- 심상선, 이재민(1996). “전통신고전학과의 이론에 내재된 균형원리” {전북대학교 논문집}.
- 안병근(2001).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내용의 검토”, {초등사회과교육}, 제13집, pp.141~170.
- 양승필 역(2000). {경제인류학}. 서울: 예전사.
- 원용찬(2002). “화폐의 심볼리즘, 현대 상징화폐, 지역화폐”, 전북대학교 미발표논문.
- 유창근(1997). {이럴 땐 이런 얘기}. 서울: 서원.
- 윤옥자(1997). “유년동화의 본질”, {국어국문학}, 제16권 1호, pp.127-158.
- 이명옥(2001). “경제동화에 대한 이야기나누기활동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성 역(1992). {북학의}. 서울: 한길사.
- 이재민(1998). “청소년기 경제지식습득과정의 남녀 차와 경제관 비교” {산업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 정현식 역(1991). {경제학 방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 주문식(2000). {춘향전 · 심청전 외}. 서울: 배우리.
- 최상진(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조남국(1994). {한국사상과 경제윤리}. 서울: 교육과학사.
- Burris Val(1983).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ncepts", Human Relations, Vol.36, No.9, pp.791-812.
- Dittmar Helga, Lucy Pepper(1994). "To have is to be : Materialism and person perception in working-class and middle-class British adolesce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15, pp.233-251.
- Hartley James E.(2001). "The Great Books and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pp.147-159.
- Kish-Goodling, Donna M.(1998). "Using The Merchant of Venice in Teaching Monetary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Fall, pp.330-339.
- Lea Stephen E. G., Roger M. Tarpy, Paul Webley(1987). The Individual in the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Alan, Paul Webley, Adrian Furnham(1995). The New Economic Mind, Harvester Wheatsheaf.
- McGurk Harry(1992). "Fairy Tales and Other Literature as Instruments in Young Children's Economic Socialization" in Glynis M. Breakwell, Social Psychology of Political and Economic Cognition, Surrey University Press. pp.143-159.
- Roland-Levy(1990). "Economic Socialization: Basi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11, pp.469-482.
- Thaler Richard H.(1992). The Winner's Curse, The Free Press.

[영문초록]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Using Korean Traditional Tales in Children's
Economic Education

We look into the contents of our traditional tales in the aspect of children's economic education. Children are lack of experiences and capacity of cognition. They will be able to understand economic concepts well with the vivid expressions about the situations of events and characters' motivations in the stories. Especially the tales are short and develop very fast which help children easily grasp the relations between the cause and the result with interest.

At a glance, the stories seem depicting the world not apposite to modern economy. But in fact most aspects of the economic cases in the stories turn out to be suit for the education of basic economic concepts. Moreover, the various cases will help children enlarge their views on economic phenomena explained in a narrow view at economic theory.

Moral hazard becomes economic key issues in modern economic theory. However economic moral is treated lightly in school. We should lay stress on trust, cooperation and sharing in children's economic education. We conclude our traditional tales to be unique materials we must make use of to succeed our good traditional economic values to our descendant.

Key Word : economic education, tale, economic ethics, children